

감시·통제 맞선 고 박조열 작가의 삶을 되짚다

ACC 아카이브 특별전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전시 3월23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검열의 시대 저항 예술활동 펼쳐 희곡 초고·공연 기록물 등 선배 11일 국립극단 ‘낭독 공연’ 개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던 시대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하며 공연계의 발전을 도모했던 한 인물의 삶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1일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아카이브 전시를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개막식을 열고 내년도 3월23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5년 고 박조열 작가가 ACC에 기증한 기록물로 구성되며, ‘오장군의 발톱’과 ‘토끼와 포수’ 등 희곡 초고를 비롯한 각종 저술과 다수의 공연 기록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박조열(1930~2016)’은 함경남도 함주군 출신으로 흥남 철수 작전 때 월남해 13년간 군인으로 복무하고 예편 이후에는 극작가로 활동했다. 박 작가의 대표 희곡 ‘오장군의 발톱(1974)’에는 6·25전쟁과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개인적 경험이 담겨있다. 작품 속 등장하는 주인공 ‘오장군’을 통해 평범한 인물이 전쟁 속 소모되는 비극을 다룬다.

이 작품은 냉전 체제의 심화와 반공 이념이 강조된 시기에 공개돼 전쟁과 군대를 소재로 한 이유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 집필 다음 해인 1975년 극단 자유극장의 초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검열 기구의 ‘공연 불가 판정’을 받아 14년이 지난 1988년에야 ‘오장군의 발톱’은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됐다. 이 공연은 백상에 술대상에서 대상, 작품상, 연출상, 희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박 작가는 지방 연극제의 도입, 한일 간 연극 교류, 창작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연극대본 사전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해 연극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조열의 삶과 그의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을 집중 조명함과 동시에 1960~1970년대 공연계의 상황과 이에 대응한 그의 활동을 소장 기록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올해 상반기 AC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공개한 고 박조열 작가의 기록물들을 관객들이 직접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슬기 ACC 학예 연구사는 “지난 2014년 박조열 선생이 작고하기 전 첫 접촉을 한 뒤 2015년부터 기록물과 함께 아카이브 전시를 위한 본격적 타진에 들어갔다”며 “박 선생의 기록물들을 수집·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

지만, 우리나라 연극계에 큰 영향을 미친 거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장의 마지막 챔터에서 다루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서는 박 작가가 생전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배경과 당대 검열이 이뤄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가치관을 확고히 알리는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전시와 함께 낭독 공연도 개막일인 11일 ACC 극장3에서 열린다. 국립극단이 선보이는 ‘오장군의 발톱’ 낭독회 공연은 신재훈 연출가와 이승호 음악감독이 맡아 진행한다. 낭독 공연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는 국립극단을 포함해 아르고 예술기록원 등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 협의회(K-PAAN)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아르고예술기록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당시 검열기록에 접수된 ‘오장군의 발톱’ 심의 대본과 구술 기록물을 제공했다.

이강현 ACC 전담장은 “이번 전시는 소장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 협력으로 이뤄진 뜻깊은 전시”라면서 “전시와 낭독 공연을 통해 작가 박조열 선생의 삶과 그의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카이브 전시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개막식을 11일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개최한 뒤 내년 3월23일까지 선보인다. 사진은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고 박조열 작가가 ACC에 기증한 기록물들. ACC 제공



광주시립교향악단이 390회 정기연주회 ‘2024 송년음악회’를 오는 2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향, 24일 송년음악회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서 베토벤·브람스 등 명곡 선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 연주회 ‘2024 송년음악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베버 ‘오베론 서곡’, 베토벤 ‘삼중 협주곡 C장조’, 브람스 ‘교향곡 1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베버의 ‘오베론 서곡’으로 1부의 문을 연다. ‘오베론’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 등장하는 요정 나라의 왕이다. 오베론의 요술 나팔을 상징하는 호른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입부를 지나 힘찬 관현악 연주로 활기찬 음악이 이어진다.

이어 베토벤 ‘삼중 협주곡 C장조’를 연주한다. 세 대의 독주악기를 사용해 신선하고 파격적인 구성을 갖춘 협주곡이다.

바이올린 박지윤, 이정란 첼로, 유영옥 피아노 등 주목받는 연주자들이 광주시향과 협연해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향은 2부에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선보인다. 이 곡을 초연했던 지휘자 한스 폰 빌로우는 베토벤 교향곡 9번 이후 가장 중요한 교향곡이라는 뜻으로 이 곡을 가리켜 ‘교향곡 10번’이라고 했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광주시향 김영언 부지휘자는 “올 한 해도 광주시향 공연에 찾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날 연주되는 브람스 교향곡 1번, 특히 4악장의 따뜻한 감성은 연말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만큼 이번 연주회에 많은 관객들이 함께 그 기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향의 2024년 송년음악회는 광주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박찬 기자

ACC, 2024 지역청년문화예술인 교류행사 ‘성료’

지역문화계 상생발전 위해 기획 다양한 의견 공유·명사 특강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7일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2024 지역청년문화예술인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CC와 ‘ACC 청년문화인 자문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요 관람객인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인 간 콘텐츠 공유와 지역문화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문화예술인 8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청년문화예술인 공유 프로젝트(주제별 분임 토의) △청년문화예술인 성장 프로젝트(명사 특강) △자유 네트워킹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4개의 주제를 통해 참여자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의 창의적



지난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역청년문화예술인 교류행사’ 참여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CC 제공

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ACC에 제안됐으며,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과 바람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2부에서는 최근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한 파일럿 오현호 강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오 강사는 ‘세상을 바꾸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결국 행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3부는 참여자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일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경한 ACC 청년자문단 위원은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열정과 영감을 나누고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ACC와 함께 더 큰 성장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강현 ACC 전담장은 “지역문화예술계와 ACC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주)극단 코스모스, 연말맞이 ‘프리즌·라이어’ 무대 선배

프리즌, 14~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라이어, 17~25일 5·18기념문화센터

(주)극단 코스모스가 연말을 맞아 인기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이 오는 14~22일 광주 동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프리즌은 개그맨 컷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인

기를 끌고 있는 대학로 대표 작품 중 하나다.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미국 록 밴드 ‘건즈앤로즈스(Guns N’ Roses)’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코믹 록 뮤지컬이다.

작품은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 해 온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고 돈을 갚기 위해 은행을 털었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탈출하기 위한 소동을 그린다.

전 울랄라세션 멤버 하준석이 엑스 역으로 출연하는 등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

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국민연극 ‘라이어2탄-그 후 20년’이 오는 17~25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소심한 은행원 ‘영호’에게 갑자기 100억 4000만원이라는 일확천금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코미디극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서로를 속이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다.

한편 이번 두 공연의 예매는 인터파크 또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박찬 기자